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잔여세대

순번추첨 동호지정 공급

LH 전북본부, 10년공공임대주택 1006호 중 317호 대상 오늘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06호(74㎡ 190호, 84㎡ 816호)중 잔여세대(317호)를 순번추첨 동호지정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순번추첨 동호지정은 신청자가 추첨으로 부여받은 순번대로 직접 원하는 동, 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이다. 앞선 순번이 당첨된 입주자는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개발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 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군산신역세권 B3블록의 주택유형은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후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요건(본인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과거당첨 이력 등은 신청과 무관하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0천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전환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최대보증금 선택시 임대료 17만5,000원)

또한 지상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단지로 조성했고, 1.39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36%이상을 확장형 주차로 계획했으며 주차유도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중앙의 106동 24·25층에 위치한 스카이클럽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공급일정은 1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 4~7일 신청접수, 8일 동호지정 순번발표, 11~17일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9월부터 가능하다

주택 홍보관은 전북도 군산시 월명로 184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산신역세권 B3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s-b3.co.kr)를 통해서도 사이버견본주택 등 각종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주택홍보관(063-461-0992)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씨 고구마, 3년마다 바꿔 쓰세요'

농진청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3년 사용시 복합감염률 41.5%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5년 동안의 연구 결과,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가 복합감염 되었을 때 수량이 줄어드는 정도와 바이러스 종류별 감염률을 밝혀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무병묘를 3년 사용할 때 복합감염률이 41.5%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구마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씨 고구마를 3년마다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 무병묘가 복합감염 될 비율은 0.5%이지만, 사용기간에 따라 1년 사용 시 14%, 2년 사용 시 28%로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특히 3년 사용 시에는 41.5%로 일반묘 감염률인 49.5%와 비슷해졌다.

고구마 수확량은 1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염되지 않은 묘에 비해 10% 감소하고, 2가지 종류 바이러스에 걸리면 31%, 3가지 종류 이상 바이러스에 걸리면 48% 줄었다.

국내에는 고구마 바이러스 8종류가 보고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고구마잎말림바이러스(SPLCV), 얼룩무늬바이러스(SPFMV), 무병징바이러스(SPSMV-1), 고구마C바이러스(SPVC) 등 4종류의 바이러스가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차 묘의 바이러스 감염률은 고구마잎말림바이러스 92%, 얼룩무늬바이러스 44.5%, 무병징바이러스 40%, 고구마C바이러스 29.5% 순으로 높았다.

고구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 생육이 느리고 잎색이 녹색에서 연두색으로 퇴색되며, 얼룩반점이 생기거나 잎이 말리는 증상을 보인다. 고구마는 씨가 아닌 식물체로 번식해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려면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무병묘를 심어 얻어진 고구마를 씨 고구마로 써야 한다.

바이러스 무병묘를 이용한 씨 고구마(100~300g) 생산량은 6월 중순에 심을 경우 가장 많고, 재배 기간은 130일 정도가 적당하다.

무병묘 증식양이 적을 경우에는 7월 상순까지 심어도 된다.

노재환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바이러스 감염률이 일반 묘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씨 고구마를 3년마다 바꿔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성년의 날 축하드립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5월 1일까지 이벤트 예 · 적금 등 가입한 2001년생 고객 대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1일까지 '성년의날! NH농협은행에서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농협은행에서 예·적금, 청약상품을 가입한 2001년생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001명에게 장미꽃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5월 중순에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장미의 꽃말은 '사랑'과 '열정'으로, 성인이 된 고객님께 이벤트를 통하여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길 기원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1일까지 '성년의날! NH농협은행에서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협약 확대

전북은행, 240억원 금융지원 기존 업무 협약 지원 업종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추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4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과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소상공인 및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 대출금리 최저 2.23%(4월 16일 기준, 변동금리), 대출기간 최대 10년으로 유동성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북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존 업무협약의 지원업종에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추가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원대상 업종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관광, 공연, 운송, 전시, 의료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 피해사실이 있는 기업, 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중소기업, 위기지역(대구·경북) 소재기업,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8일부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임용택 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속에 이번 업무협약 확대로 인해 금융지원이 간절한 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지원 또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통한 피해구제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IMF "아시아, 올해 0%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아시아의 성장률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0%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IMF 블로그에 올린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1960년대 이후 최저 성장" 제목의 글을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이 국장은 "2020년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제로(0)%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4.7%), 아시아 금융 위기(1.3%) 때보다도 나쁘며 60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라며 "하지만 아시아는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상황이)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2.2%)보다 -3.4%p 하향 조정된 수치다.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3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직전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폭은 3.4%포인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수준이다.

이 국장은 한국과 관련해 "장기적인 생산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췄다고 보인다"고 호평했다.

일본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2%, 1.2%였다.

아시아 외 지역을 보면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각각 -5.9%, -7.5%였다.

/뉴시스